

광주 서영춘·전남 이찬미, 데플림픽 볼링 나란히 '금 2'

〈청각장애인올림픽〉

서영춘 2인조에서도 동메달 추가 이찬미 동 3개 등 메달 5개 획득

서영춘(광주시장애인체육회)과 이찬미(전남도 장애인체육회)가 제24회 카시아스두술 하계데플림픽 볼링에서 나란히 금메달 2개를 따냈다.

1일 광주시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서영춘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이 대회 볼링 남자 3인조, 5인조에서 각각 금메달을 수확했다.

서영춘은 지난 29일 안승조·박재웅·함중훈·김택한과 출전한 남자 5인조 준결승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183-180, 간발의 차이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이어 결승전에서 말레이시아를 228-199로 이겨 금메달을 획득했다.

개인 종합순위 6위로 남자 마스터즈 경기에 출전한 서영춘은 4강전에서 알 마크발리 아이만 살림(아랍에미리트)에게 0-2(168-205, 143-214)로

패해 동메달을 획득했다.

그는 지난 24일 남자 2인조 경기에서도 동메달을 손에 넣었다.

전남도장애인 체육회 이찬미도 볼링에서 금메달 2개와 동메달 3개를 획득했다.

이찬미는 여자 2인조에서 우승, 대한민국에 첫 금메달을 안겼다.

이어 올이벤트 금메달, 개인전 동메달, 2인조 동메달, 5인조 동메달을 획득하는 등 모두 5개 메달을 차지했다.

그는 제41회 전국장애인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지난 8월 데플림픽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됐다.

선전적 청각장애를 타고난 이찬미는 2008년부터 볼링에 입문, 데플림픽 메달 입상을 목표로 기량을 꾸준히 닦아왔다.

데플림픽은 청각장애 선수들을 위한 올림픽으로 국제올림픽 위원회(IOC)가 선정한 도시에서 4년마다 개최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제24회 카시아스두술 하계데플림픽 볼링 5인조에서 우승한 대한민국 선수들. 함중훈(왼쪽부터)·박재웅·김택한·서영춘·안승조. <광주시체육회 제공>



하계데플림픽 볼링에서 금메달 2개 등 메달 5개를 획득한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이찬미.



호쾌한 덩크슛 1일(한국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피셔브 포럼에서 열린 2022-2023 시즌 NBA 정규리그 경기에서 홈팀인 밀워키의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호쾌한 덩크슛을 성공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남자 체조, 세계선수권 단체전 결선 진출

9회 연속 올림픽 본선행 청신호

한국 남자 기계체조 대표팀이 제51회 세계선수권대회 단체전 결선에 진출했다.

김한솔(27·서울시청), 이준호(27·전북도청), 김재호(20·한국체대), 류성현(20·한국체대), 이정호(25·포스코건설)로 이뤄진 대표팀은 1일(한국시간) 영국 리버풀 M&S 뱅크 아레나에서 끝난 국제체조연맹(FIG) 세계선수권 단체전 예선에서 마루운동-안마-링-도마-평행봉-철봉 6개 종목 합계 244.093점을 획득해 8위로 8개 나라가 겨루는 결선행 막차를 탔다.

한국은 종목별로 4명이 출전에 성적이 높은 세 선수의 점수를 합산, 순위를 매긴 예선에서 도마 전

체 2위(43.833점), 마루운동 3위(41.132점)의 좋은 성적으로 결선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독일(9위), 대만(17위) 등 경쟁국을 따돌린 것도 수확으로 꼽힌다.

이번 대회 결선에 진출하면서 한국 남자 체조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이래 9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청신호를 켰다.

FIG는 이번 대회 결선 1~3위 나라에 2024 파리 올림픽 출전권 3장을 먼저 주고, 내년 세계선수권대회 단체전 예선 상위 9개 나라에 나머지 출전권을 배정한다.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면 한국은 내년 세계선수권대회 단체전 예선 중상위권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파리행 티켓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단체전 예선은 개인 종목별 예선을 겸해 치러진다. 대표팀의 간판 선수 3명이 종목별 결선 무대를 밟는다.


지난해 도쿄올림픽 마루운동 4위를 차지한 류성현은 이날 마루운동 14.466점을 받아 전체 6위로 8명이 경쟁하는 결선에 진출했다.

류성현은 또 6개 종목을 모두 뛰는 개인 종합에서도 81.930점을 얻어 예선을 13위로 통과하고 결선에서 24명의 선수와 메달을 다툰다.

대표팀의 만능 김한솔과 이준호는 도마 결선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이준호는 1, 2차 시기 평균 14.450점을 받아 6위를 차지했고, 김한솔은 14.433점의 예선 8위로 나란히 결선에 진출했다. /연합뉴스

“데뷔 28년 후회 없다” 42세 윌리엄스 은퇴 암시 글



비너스 윌리엄스(42·미국·사진)가 프로 데뷔 28년을 맞아 은퇴를 암시하는 듯한 글을 소셜 미디어에 게시했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1일 윌리엄스의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소개하며 “그의 전설적인 경력의 곧 마무리될 것이라는 추측이 힘을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윌리엄스는 1994년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뱅크 오브 더 웨스트 클래식 경기 사진과 함께 “28년 전 오늘 프로 데뷔전을 치렀다. 28년 후 나와 세리나가 이 종목에서 어떤 경향을 하게 될 것인지 상상하지 못했다”는 글을 올렸다.

1994년은 윌리엄스가 불과 14살일 때다.

그는 이어 “경기에서 이길 때도 있었고, 질 때도 있었지만 결국 나는 항상 최고의 경기력을 추구했던 것”이라며 “지금 후회 없이 지난 시절을 돌아볼 수 있다”고 적었다.

윌리엄스보다 한 살 어린 동생 세리나 윌리엄스는 9월 US오픈을 끝으로 은퇴했다.

WTA 투어에서 뛰는 선수 가운데 최고령인 비너스는 현재 단식 세계 랭킹 1011위를 기록 중이다.

메이저 대회 단식에서 7차례 우승하고, 세계 랭킹 1위까지 올랐던 그는 올해는 4개 대회에 출전했으나 단식 경기에서 4전 전패를 당했다. 아직 은퇴 계획을 밝힌 바 없으며 2023년 1월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호주오픈에 출전하려면 초청 선수인 와일드카드 자격을 얻어야 한다. /연합뉴스

아데토쿤보 31점...NBA 밀워키 개막 6연승

미국프로농구(NBA) 밀워키 벅스가 31점을 퍼부는 야니스 아데토쿤보와 결정적 3점을 터뜨린 즈루 할러데이를 앞세워 디트로이트 피스톤스를 제압하고 개막 6연승을 내달렸다.

밀워키는 1일(한국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피셔브 포럼에서 열린 2022-2023시즌 NBA 정규리그 홈 경기에서 디트로이트에 110-108로 신승했다.

개막 6연승을 달린 밀워키는 동부 콘퍼런스 선두 자리를 굳게 지켰다. NBA 30개 팀 중 올 시즌 한

번도 안 진 팀은 밀워키 하나뿐이다.

시즌 초부터 상대를 가리지 않고 림을 맹폭하는 아데토쿤보가 양 팀을 통틀어 가장 많은 31점을 쏟아냈다.

아데토쿤보는 올 시즌 6경기에서 평균 34.4점의 무시무시한 득점력을 보인다. 21점을 넣은 개막전을 제외한 모든 경기에서 30점 이상을 기록했고, 40점 이상도 2번이나 기록했다.

아데토쿤보는 디트로이트의 추격이 거세던 4쿼터 종료 2분여에 페이드어웨이슛을 성공시켜 4점

차를 만드는 등 밀워키의 승리에 앞장섰다.

다만, 가장 결정적인 득점은 할러데이의 손끝에서 나왔다. 할러데이는 105-105로 팽팽하던 종료 45초에 스텝 백 3점을 쏴 양 팀의 추를 밀워키 쪽으로 확 기울였다.

이어진 디트로이트 공격에서 케이드 커닝햄의 슛이 잇따라 림을 외면한 가운데 1.5초를 남기고 밀워키 브룩 로페즈가 얻어낸 자유투가 모두 득점으로 연결되면서 밀워키의 승리가 굳어졌다.

할러데이는 아데토쿤보 다음으로 많은 25점에 10어시스트를 곁들여 ‘더블 더블’을 작성했다.


커닝햄은 디트로이트에서 가장 많은 27점을 올렸으나 패배에 빛바랬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자백
2관	블랙 아담
3관	자백, 리멤버, 미시즈 해리스 파리에 가다
4관	자백
5관	리멤버, 아인보: 아마존의 전설
6관	리멤버
9관	인생은 아름다워,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수수께끼! 꽃피는 천하떡임학교, 소마일
7관 씨네커튼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수수께끼! 꽃피는 천하떡임학교, 가재가 노래하는 곳
8관 씨네커튼	리멤버, 블랙 아담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_포시즌 실내악시리즈 ⑥
뷔에르 앙상블
일시: 2022. 11. 21.(월) 19:30
장소: 광주광역시청 대회의실
문의: 062-613-8235



GAC기획_포시즌 실내악시리즈 ⑥
몰토 콰르텟
일시: 2022. 11. 7.(월) 19:30
장소: 광주광역시청 대회의실
문의: 062-613-8235